

日 나가사키서 옮겨심은 '피콕 감나무'

광복절 광주서 새싹 틔웠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콕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과가 광복 63년이 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원자폭탄 현상인 일본 나가사키에서 옮겨심은 감나무가 광복절을 앞두고 새싹을 틔웠다.



'생명·화합의 나무'로 불러

'전쟁 없길 바라는 메시지'

광주 중외공원 안에 심어진 '피콕 2세 감나무'(사진)는 지난 2000년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일본의 미야자마 디스로씨가 비엔날레의 야외무대인 중외공원내 현광주시립미술관(옛 북한관 자리) 길목에 '시간의 소생-감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심었다.

이 감나무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 나가사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명체인 감나무를 접붙인 것으로, '생명'과 '화합의 나무'로 불려왔다. 태평양전쟁과 식민지정착을 통해 동아시아인들을 전쟁과 수탈의 참화물 몰아간 일제의 죄상과 댓가를 응축해 보여주는 나무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누군가 감나무에 제조제를 뿌리거나 가지를

레나 반일감정의 분골이 대상이 돼왔다.

지난달에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누군가 고의적으로 가지를 완전히 꺾고, 뿌리를 짓밟았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 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02년 고사(枯死) 이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모처에서 키우고 있던 제2의 '피콕 2세 감나무'를 옮겨 심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원자폭탄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력 때문일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감나무가 이달 초 새싹을 틔우더니 지난 8일 비가 내린 뒤 20cm 크기로 활짝 자랐다.

광주시립미술관의 한 관계자는 "이 감나무는 인류가 전쟁이라는 참혹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준다"면서 "광복절을 앞두고 새싹을 틔운 것이 아직도 전쟁과 식민지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우익에 대한 경고는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복절 환경정화

자원봉사자 600명이 1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 앞에서 광복 63주년과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국토 청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민주의 종각과 5·18 기념공원, 광주공원 등지에서 쓰레기와 잡목·잡초를 제거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원폭 피해 한국인 2,600명 日 정부 상대 내달 손배소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호남지부(지부장 유익선)는 14일 호남지부 회원 50여명을 포함해 전국 2천600여명의 원폭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기로 하고 국내 지부별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폭협회 호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제주에서 살고 있는 원폭피해자가 50여명 가량으로, 이중 15명이 1차 소송인단에 포함됐으며, 다음달 중으로 서울·경기·충청지부와 함께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폭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100만엔씩 모두 26억엔(약 240여억원)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남 광복절 행사 다채

광복절 63주년과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해 광주·전남지역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광주시 새마을회는 15일 독도 지킴이 서명운동과 태극기 보급 및 계양운동을 한다. 새마을회는 이날 동구 지원 2동을 비롯한 서구 양동, 남구 백운 1동 벽산아파트, 북구 일곡동 동아아파트 등 지역 주택가와 상가, 아파트 등 일대에서 태극기 계양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차량용 태극기 2천 개를 마련해 운전자들에게 직접 나눠주었다.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도 15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갖는다. 북구협의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광주의 광장에서 진흥고 학

생 200명과 함께 태극기 사랑 운동과 함께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를 갖는다.

또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15일 '태극기 만들기' 체험행사와 '도전! 역사 퍼즐' 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18일에는 광산구 송정 재래시장에서 제63회 광복절 기념이벤트가 열린다. 광주시 광산구가 주최하고 송정 5일 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독립만세 퍼포먼스, 태극기 그리기, OX 퀴즈, 옛날 먹거리 소개 등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또 풍물놀이와 가수들의 라이브 콘서트, 비보이댄스 공연과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이종행 기자 glee@kwangju.co.kr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권고

광주지법 행정부

시민단체가 "시장의 업무추진비 등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법률상 공개 대상 자료는 가급적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4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열린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대표 이영선 신부)이 박근혜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취소청구 소송 속핵 공판에서 "다음 번부터 기일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광주시로 하여금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시민단체와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합의 유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시의 비공개 입장이 바뀔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광주시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많은 양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고 민간이전 예산지출 중 증빙서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비공개했으니 시민단체 측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정보의 공개 내용과 방법 등이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는 만큼 양측이 공개대상과 방법을 합의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4일 광주시와 5개 구청을 상대로 2002년 7월부터 내시 까지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1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

고속버스 추락 22명 부상

14일 새벽 0시10분께 무안군 동탄면 서해안고속도로 동탄1터널 부근 하행선(목포 기점 14km)에서 장모(45)씨가 몰던 목포행 고속버스가 장모(48)씨의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간간을 뚫고 도로 옆 비탈길 7m 아래로 내려가 멈췄다.

이 사고로 승객 2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무안과 목포의 5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프 운전자 장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후 5시에 광주시 북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영업소 인근에서 D고속 시외버스가 중앙보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나 승객 2명이 다쳤다. /최권일기자 cki@

상습 차량털이범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14일 광주 시내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범을 출처은 박모(44·순천시 연향동)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북구 운안동 N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28대의 차량 털이범을 드라이버로 부수고 금품을 훔치는 등 북구와 동구지역 아파트를 돌며 63대의 차량에서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중전과자를 상대로 물품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31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박씨의 차량이 범행 현장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583) 김장두



다 좋은 건국·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경적 울리고 쳐다본다" 주먹질

상대말

○택시 승차장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 행.

○광주동부경찰은 14일 차량 진입을 가로막고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뒤 폭력을 행사한 이모(24·경기도 오산시)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에 광주시 동구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 택시 승차장에서 김모(22)씨에 몰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내리게 한 뒤 김씨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정모(22)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택시를 타려는 순간 운전자의 김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이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에게 남긴 연락처를 토대로 이씨를 검거.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지역	소제지	인근	토지/건물(㎡)	남지	건평	층수
전남	함평군 함평읍	254/98	192년	192년	254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88/155	192년	192년	188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229/282	192년	192년	229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270/217	192년	192년	270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35/747	192년	192년	135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363/259	192년	192년	363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35/144	192년	192년	135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229/154	192년	192년	229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62/174	192년	192년	162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53/160	192년	192년	153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49/96	192년	192년	149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31/144	192년	192년	131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88/83	192년	192년	188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50/111	192년	192년	150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31/138	192년	192년	131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61/158	192년	192년	161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411/82	192년	192년	411	2
전남	함평군 함평읍	1108/282	192년	192년	1108	2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1. 연수일정

구분	일정
개강일시	주중반 2008. 9. 5(금) 9:30 주말반 2008. 9. 6(토) 9:30
모집기간	2008. 7.21(월)~2008. 8.30(토)
수업기간	2008. 9. 5(금)~2009. 2.27(토) (6개월/24주)
수강료	₩320,000

모집인원: 1단계 주중/주말반 선착순 25명

수업시간: (매주 금, 토) 9:30~14:50(5강좌)

수료후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출장 발급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 취득기회(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 화: (062)950-3584, 3585

H·P: 011-614-4160

광주은행: 148-107-307803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ppt://www.kwu.ac.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1. 연수일정

구분	일정
개강일시	주중반 2008. 9. 1(월)9:30 개강 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08. 7.21(월)~2008. 8.30(토)
수업기간	2008. 9. 1(월)~2009. 2.23(월)(6개월/24주)
수강료	₩360,000

모집인원: 1단계 주중 선착순 35명

수업시간: (매주 월) 9:30~14:50

수료후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출장 발급 수료증 수여
-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 취득기회(연간계수)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 화: (062)530-3873~5

H·P: 016-611-1171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ppt://sle.jnu.ac.kr